



세계 대형선사들 중국 자동차운송시장 적극 참여

COSCO, NYK, MOL WWL 등 자동차 수송선사

최근들어 중국의 자동차 수송시장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인 자동차 수송선사들이 적극 진출하고 있다.

중국 최대선사인 COSCO(China Ocean Shipping Company)는 최근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과 장기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형 물류업체들이 중국 자동차 운송시장에 뛰어들었다. COSCO는 17개 자동차 생산업체와 수송계약을 체결하여 향후 15년간 자동차 및 부품 수출물량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OSCO의 자동차 운송사업은 현재 6척의 자동차 전용선을 운항하고 있는 자회사인 광조우오션쉬핑(Guangzhou Ocean Shipping)이 맡고 있는데, 선박의 대부분이 노후되어 있어 자동차 전용선의 대량 신조발주 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COSCO와 자동차 수출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지원함과 더불어 자동차 해외수출을 증강하기 위해 '8대 자동차 수출지구'를 선정하였다. 8개의 자동차 수출지구는 대부분이 해안에 위치한 무역항이거나 또는 양쯔강에 위치한 하천항구로 상하이, 톈진, 샤먼, 우한, 창춘, 충칭, 우후, 타이조우로 결정되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을 포함한 160개의 자동차 및 부품 생산 업체에 대해 수출을 장려하고,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국은 17만3,000대의 자동차를 중동,

남미, 러시아 등에 수출하여 자동차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올 해에는 35만대의 자동차가 수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자동차산업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세계시장 특히, 미국 및 유럽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NYK, MOL, K-Line 등 대형선사들도 중국내 자동차 및 부품 물류 사업에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NYK는 COSCO와 공동으로 상하이, 다롄, 광조우에 자동차 물류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이 안지(Anji Automotive Logistics)사와 합자로 자동차 국내 물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MOL은 시노트란스(Sinotrans)와 공동으로 2척의 자동차 전용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광조우의 도요타(Toyota) 자동차에 대한 중국내 물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K-Line도 차이나쉬핑(China Shipping)과 함께 4척의 자동차 전용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물류업체인 스칸디나비아의 발레니우스 빌헬름센(Wallenius Wilhelmsen Logistics : WWL)사가 중국에 자동차 전용터미널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WWL은 60여척의 자동차 운반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직영 자동차 전용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다.